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몇 해 전에 구글의 한 수학자를 워크숍에 초청했다. 그는 발표 동영상을 찍지 말아 달라 하더니 발표 파일도 남기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나 했다. 나를 폐쇄적인 회사의 수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를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치고 나가는 구글로서는 그 과실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 비밀 유지가 왜 중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구글이 작년 11월에 기계학습 소프트웨어인 텐서플로를 누구나 수정까지 할 수 있게 공개하자 인공지능에 한 발 걸친 사람들은 환호했다. 보통 사람들은 기계학습이니 딥러닝이니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던 때였다. 울분배 알파고 충격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뒤에는 초동학생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는데

에게도 생소하지 않은 말이 됐으니 상전벽해다.

알파고로 화들짝 놀란 우리 사회에 열띤 후속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공지능의 주요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발전할 것이니, 부족한 데이터를 쌓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구글이 알리움은 공개해도 데이터는 공개 안 한다고도 한다.

어디서 이런 착시와 오해가 생겼을까. 구글이나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세 작동 알고리즘을 공개할 거라는 건 환상이다. 집단지성으로 기술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 게 합리적이지만, 지금은 보편적(generic) 수준의 개방을 크게 넘지 못한다.

알파고 기술이 공개됐다는 것도 오해다. 알파고의 요소 알고리즘과 전체적인 작동 방식은 네이처 논문의 형식으로 공개됐지만, 타사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알파고의 정확도를 재현하고 있나? 상세 알고리즘이 있으면, 공개된 기보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한 뒤에, 끊임없이 다른 프로그램과 두어 보면서 방대한 추가 데이터를 만들고 축적해서 학습할 수 있다. ‘하면서 배우는’(learning by

doing) 것이다.

결국 타 기업이 못 따라가는 이유는,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 문데카들로 서치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지, 딥러닝의 히든레이어 수는 어떻게 정하는 등의 기술적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는 탓이다. 알파고를 만들어 낸 영국 회사 딥마인드는 그 상세 알고리즘을 모기업인 구글에게도 비밀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전 인공지능의 대세였던 규칙기반 방식에 비해서 지금의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의미를 읽어 낸다. 의뢰에 질병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 측정치가 예전 환자들의 측정치와 흡사한지를 계산하는 데서 보듯이, 그 핵심은 수학의 최적화 이론 활용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물론 중요하다.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야 정확한 진단을 하는 닥터 알파고가 나올 수 있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해야 스스로 운전하는 차들이 길거리에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찾아내고 인간에게 유익한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핵심은 수학적 알고리즘이다.

먼저 기술을 개발하는 선진국이 다 공

개발 것이니 우리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야 아예 지금부터 영원토록 따라잡기만 하자는 말과 뭐가 다른가. 안드로이드라는 공개 운영체제를 믿고 하드웨어에 일로매진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구글의 고급형 스마트폰인 픽셀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맞게 됐다. 구글의 스마트폰 사업이 폐쇄형 기업 애플을 뛰어간다는 말도 나온다.

애플도, 페이스북도, 구글도, 테슬라도, 우버도, 중국 기업 바이두도 모두 강력한 자체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팀을 운영한다. 이 분야 우수 연구자들을 훔쳐어 가는 바람에, 대학과 연구소들은 인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인재들이 열심히 데이터만 모으고 있다.

결국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모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읽어 내는 알고리즘 연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남이 만든 것 가져다 쓰면 된다는 시각은 분명 무모하다. 이 분야 국내 연구자가 충분치 않지만, 인접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새로운 지적 자산을 경험하게 한다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종교칼럼

독신의 참된 의미



조방기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가와 결혼했다고 선언했다. 엘리자베스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에 걸맞게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훌륭한 여왕 베스(Good Queen Beth)’라는 칭호를 당대에 듣기도 했다.

언뜻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른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이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라”(마태 19,12)

교종 바오로6세는 사제독신생활에 관한 회칙에서 이런 말을 한다. “사제는 독신이란 새롭고 고상한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했으므로 실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한 애덕을 향구히 실천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과 최선의 준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 이 사람으로 사제는 모든 이를 위하여 보다 폭넓게, 보다 결정적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고 보다 자유롭게 더 효과적으로 성무를 집행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의 파견을 받아 세상을 활동과 사랑의 무대로 삼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들에게 의당 झा야 할 빛을 완전히 갈을 수 있을 것이다.”(1967년, 32항)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2년 8월27일 새누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선거를 둘러싼 부정, 반복되는 축근이나 권력형 비리 등 이런 것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를 없애는 게 기본”이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제한한 분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고 4년이 지난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제들은 독신제를 유지하면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최대의 능력과 최선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100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국가와 결혼한 대통령의 축근들은 4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나?

안대희 대법관이 말한 축근들의 비리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최순실은 대통령의 뒤에 숨어서 최대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 같다. 이화여대, 승마협회, 미르 재단, K스포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는 물론, 국정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비길 만한 일인지도 의아하다.

바오로 6세는 독신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은 회칙에서 지적하고 있다. “만일 사제들이 결혼을 한다면, 교회에 심한 상처를 입히거나 교회를 괴롭히는 불충,

탈선, 불행한 실수 등의 기회는 이미 그들에게 있을 리 없고, 현재의 생활 조건 때문에 소외당한 것처럼 여기는 그들이 결혼을 한다면 오히려 가정생활을 통해서 보다 충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9항)

그럼에도 독신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독신생활은 오늘도 사제직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온전히, 영원히, 오로지 그리스도 사랑에 봉헌하고 하느님 공경과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진력해야 할 사제는 독신생활로 지탱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독신제도로써 사제의 지위가 신자들과 세속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에서 구별되어야 하겠다.”(14항)

사제 독신제의 의미가 독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 것처럼, 사제는 단지 결혼하지 않아서, 가족관계가 단순해서 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가의 시스템과 민주주의적 절차를 바로 정립하고 여러 사람과 두루 어울릴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을 원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최순실 소환하고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하라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시국선언이 다시 등장하고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걱정이 많다.

최 씨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라던 대통령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던 국민은 집단 패닉에 빠졌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올지 겁이 날 정도다.

경제와 안보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히려던 유신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바라보기만 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부터 잘라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뒤늦게 미르·K스포츠 재단과 전경련 사무실 그리고 최순실 씨 집과 사무실 및 그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 자택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고발 접수 한 달만이었다. 하지만 두 재단은 이미 해산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사라졌다. 이미 기자들이 훔

고 지나간 자리를 검찰이 수색하고 있으니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정지권이 최순실 특검에 합의했지만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검찰로서는 이때까지가 ‘권력의 시너’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무엇보다 최 씨 소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 씨의 국정 농단을 파헤치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성패는 최 씨 모녀의 신병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최 씨의 소재를 모른다 했으나 최 씨는 독일에서 한 언론과 버섯이 인터뷰를 하고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수사권이 없는 언론도 파악한 소재를 검찰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독일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제3의 인물이나 기관이 최 씨 집가의 잠재를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강제소환 조치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 씨의 자진 귀국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젠 박 대통령이 나서서 결사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끊이지 않는 인권유린 근절 대책 없는가

인공지능이 떨어지는 60대 지적장애인을 10여 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전직 도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암 투병 중으로 휴대용 산소공급기를 지닌 채 농장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장성 경찰이 어제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직 도의원 오 모(68) 씨의 행태는 인면수심이란 말로도 부족할 정도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지적장애인 A(67) 씨를 데려와 곡성과 장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 두 곳에서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까지 10년간 1억 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또 A 씨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지니해부터 지급된 기초연금 등 210

만 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채고, 치료비 명목으로 A 씨 명의로 있던 돈을 팔게 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더 참담한 것은 오 씨가 A 씨를 한겨울에 보일지도 없는 폐가에서 살게 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범죄를 단죄해야 할 사법 감시망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낮은 우리의 인권의식도 문제다. A 씨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10년 동안 탈출하지 못하고 신음한 것은 주위의 묵인이나 방관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법 당국은 노동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탐문을 바탕으로 이 같은 인권유린이나 노동착취를 적발하고 근절해야 한다.

無等鼓

로마가 ‘세계의 수도’로 뻗어 나가기 시작한 공화정 초기,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덕’(德)이었다. 덕이란 ‘흠 없는 도덕이 구현된’ 것이었으며, 이 덕을 대표하는 인물이 기원전 458년 독재관(獨裁官)으로 활동한 ‘킨킨나투스’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62세에 쓴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킨킨나투스는 발을 갈다가 독재관에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을 멈춘 그는 잠시 눈물을 흘렸다. ‘그럼 올해는 발에 씨를 뿌릴 수가 없겠구나. 식량이 모

각 물러나 오두막으로 되돌아갔다.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 출신의 역사가 디오니시오스는 “(킨킨나투스처럼)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은 성실하게 살았다. 팔을 걷어붙이고 일했고, 가난을 명예로 생각하고 불행하지 않았으며, 높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화정 초기 로마가 강력한 도시국가로 성장한 배경에는 지도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감직함, 근면이 있었던 셈이다.

킨킨나투스

하지만 그런 로마도 결국엔 쇠락의 길에 걸린다. 공화정 후기에 접어든 기원전 1차라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 그는 아내에게 집안일을 부탁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 오두막을 떠났다.”

킨킨나투스는 로마의 명문 귀족이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을 대신해 보석금을 마련하느라 전 재산을 날리고 로마 외곽의 버려진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로마의 적 아이퀴족과의 분쟁을 해결하라는 임무를 받고 임기 6개월의 ‘독재관’으로 임명된 그는 16일 만에 적을 무찔렀다. 영웅이 되어 개선했지만, 그는 5개월의 임기가 남은 독재관에서 즉

하지만 그런 로마도 결국엔 쇠락의 길에 걸린다. 공화정 후기에 접어든 기원전 1세기 정치가 살루스티우스는 말했다. “부와 권력을 향한 욕망이 과거의 덕을 대체했다. 퇴락의 시대에 누가 과연 부와 사치를 버리고 강직함과 근면함으로 조상과 견주려고 하겠는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기권이 ‘비선실세’라는 민간인들의 손에 사실상 넘어간 것이 알려지면서 나라 꼴이 우습게 됐다. 국가에 대한 ‘헌신’보다는 부와 권력만을 좇는 우리 지도자들이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킨킨나투스 같은 독재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닐까. /홍형기 사회부장 redplane@

기고

청년 바로보기



한동운 광주시 청년위원

기를 나누었다. 나는 시민권의 관점에서 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생존할 권리, 자립할 권리, 일할 권리, 참여할 권리를 논의한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했다.

첫 내용을 세 가지로 풀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청년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청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첫 만남의 자리에서도 청년의 개념 정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다. 도대체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청년의 위치가 무엇이나, 예전의 청년과 지금의 청년을 다르게 불러야 하는 것이냐 등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켜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시급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현재의 청년 현실에 맞는 합의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의 개념 정의와 그에 대한 함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모적인 논쟁을 즐기고, 출발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정확한 대상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청년은 자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2014년 국제연합(UN)이 개최한 글로벌 Youth Policies에

서 제기한 정책 방향이다. 이같은 방향에 따라 유럽연합(EU)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청년보장 제도를 핵심 사업으로 세워가고 있다. 이 발표를 들었을 때 나는 정처 없이 헤매던 길에 환한 조명이 켜진 것 같았다.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장해 야 한다는 것은 이번 청년도시 컨퍼런스에서 내건 주제가 국제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흐름임을 알게 해주었다.

참여할 권리에서 시흥청년아티스트의 신재은 대표는 주민정구발의를 통해 시흥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사례발표를 해주었다. 지역 전체가 청년을 믿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년은 어렵고 불쌍해서 도와야 하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신뢰받고 신뢰받은만큼 역동성을 발휘하는 지역의 주인공이다. 작은 믿음에도 힘이 배가되는 이들이 청년이다.

세 번째는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청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청년들이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청년의 문제를 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큰 장이 열리고 있다. 열린 장을 채워가야 하는 이들은 다름아닌 청년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교과 시간에 우리는 권리에 대해 배웠다. 권리를 배우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 의무다. 권리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를 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때 커질 수 있다고 믿는다.

청년도시 컨퍼런스는 나에게 2016년 대한민국 청년을 바로 보는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청년문제가 구조적이고 종합적이기에 발표자와 토론자 누구도 현실을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있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더욱 견고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스스로 참여해야만 더 크고 빠른 걸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저기 먼 발치 대의명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까이에 있는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고 싶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